

번호 I-2

제 목	국문	비행청소년의 음주행동양상과 비행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영문	Drinking Behavior and Delinquency Patterns among Juvenile Delinquents			
저 자 및 소 속	국문	전진호, 이명성 ¹⁾ , 이종태, 손혜숙, 정귀원, 엄상화, 김성준, 유병철, 정수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¹⁾			
	영문	Jin-Ho Chun, Myung-Sung Lee ¹⁾ , Jong-Tae Lee, Hae-Sook Sohn, Kui-Won Jeong, Sang-Hwa Urm, Sung-Jun Kim, Byung-Chul Yu, Soo-Jin Jeong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Inje University, Pusan City Sasang-Gu Health Center ¹⁾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청소년기는 발달 과정 상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이 때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때 일탈된 행위, 즉 비행을 하게 된다. 최근 청소년의 음주와 비행은 규모와 내용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 비행과 음주행동 양상과의 관련성을 관찰하여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 예방대책 수립과 선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2. 연구 방법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P시에 위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남자원생 427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음주행동양상, 음주관련문제 경험 정도, 비행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음주여부와 비행 특성의 관련성을 관찰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ver 7.5)를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를 구하고 비행과 음주의 관련성은 t-test와 χ^2 -test로 평가하였다.

3. 연구 결과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14-21세 였으며, 고교생 연령에 해당하는 17-19세가 68.4%로 가장 많았다. 학교를 중퇴한 경우가 전체의 77.5% 였으며, 학교 성적은 50% 이내가 78.2%로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다. 부모의 학력은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친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64.5%로 많았다. 최근 일년 내 음주율은 98.6%로 매우 높았으며, 84.3%가 고교 입학 해당 연령 전에 음주를 경험하였고, 초등학교 때 음주를 경험한 경우도 13.3% 있었다. 음주 빈도는 89.0%가 1달에 1-2번 이상 음주를 하였으며, 평소 주량은 80.7%가 소주 한 병 이상, 자주 마시는 술의 종류는 소주 73.3%, 맥주 23.4% 등이었다. 흔한 음주 장소는 본인이나 친구집 33.3%, 호프집·노래방 33.3% 이었으며, 한달 용돈은 11만원 이상이 35.7%, 한달 용돈 중 30% 이상을 술값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정도(47.8%) 였다. 전체의 95.8%가 1가지 이상의 음주관련 문제를 경험하였으며, 항목별로 1가지 이상의 음주관련 문제를 경험한 정도는 음주통제 부족 77.0%, 호전성 행동 70.7%, 가족과의 문제 68.9%, 신체건강문제 59.3%, 증상성 음주 59.0%, 사고관련문제 54.1%, 법적 문제 53.2%, 경제적 문제 46.8%, 친구관련 문제 46.4%, 장마성 음주 31.4%, 학교문제 24.6%의 순이었다. 이들 음주관련 문제의 경험 정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9.7가지로 일반학생이나 성인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음주관련문제 경험정도에는 음주군이 평균 14.4가지, 비음주군이 평균 7.5가지로 음주군에서 비음주군 보다 더 많았다($p=0.000$). 비행의 종류는 재산범 53.6%, 폭력범 18.5%, 강력범 16.9% 등이었고, 비행시 음주율은 31.4% 였다. 비행 이유는 우발적 43.3%, 유흥비 마련 22.7%, 재미(호기심) 12.4% 등이었고 비행 시각은 저녁 10시-새벽 3시가 42.4%로 가장 많아 음주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범행시 동반자 수는 83.4%가 2명 이상 집단이었고, 공범 중 1명 이상의 음주자가 있는 경우가 49.5% 였다. 음주여부와 비행 특성의 비교에서 비행의 종류는 음주군에서 비음주군에 비해 강력범과 폭력범이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비행 이유는 음주군에서 우발적인 경우가 많았다($p=0.000$). 또한 음주군의 대부분(96.6%)이 공범자 중 1명 이상이 음주를 한 상태였다.

4. 고찰

이상의 결과는 자기기입식 설문에 의한 결과란 제한점을 지니지만 비행청소년의 음주율은 이미 성인 수준을 넘어섰으며, 상습적인 음주는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음주관련 문제의 경험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성인보다도 훨씬 높았으며 음주군에서 비음주군 보다 더 많았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소년의 음주와, 이와 관련된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